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820만원 · 실효출력 : 310W(8 $\Omega$ ) · 주파수 응답 : 20Hz-20kHz( $\pm$ 0.2dB) · 디스토션 : 0.05% 이하 · 입력 임피던스 : 47k $\Omega$   
· 게인 : 32dB(RCA), 38dB(XLR) · 크기(WHD) : 50x22x45.5cm · 무게 : 38kg

# 모든 음악에 거대한 힘을 붙여 넣다

## Plinius SB301

기존 SA 시리즈에서 A, AB 클래스 전환 스위치로 듣던 음질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사실 직접적인 비교가 되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밀도감이나 온도감은 SA 시리즈의 음색에 거의 필적한다는 것. 구동력은 SB301쪽이 확실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음색과 구동력 모두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앰프를 선택 사항에 한번쯤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최성근

**음**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왔다. 독자들 중에 가을을 좋아하는 이들은 많겠지만 필자는 가을이 싫다. 싫어하기보단 유난이 가을을 많이 타는 것 같은데 가끔은 남자의 고독이 정말 싫을 때가 있다. 어쨌든 올 가을도 어김없이 틀어대는 음악이 있으니 토니 베넷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다. 작년 이맘 때도 이 노래를 듣는다고 적었는데 시간이 흘러 중년 남성이 되어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음악을 듣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 가을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 노래가 좀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도 어쩌면 플리니우스 앰프 탓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 앰프는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진한 향 같은 음색을 들려주기 때문이다. 리뷰 제품은 SB301이라는 제품으로 플리니우스의 실질적인 톱 모델에 위치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흔히 플리니우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Pure A 클래스 대출력 파워 앰프이다.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는 모델로는 SA-100 MK2에서 MK3까지, SA-102와 SA-250 MK4를 기억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그만큼 플리니우스의 인지도는 국내에서 높다. 하지만 이 모델은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모델은 모두 SA로 시작하는 라인업인데 SB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다른 것일까? 그것은 바

로 동작하는 증폭 방법이 다른 것이다.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이 모델이 AB 클래스로 동작한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플리니우스의 파워 앰프를 한 번쯤 사용해본 독자가 있다면 조금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플리니우스 파워 앰프엔 A 클래스와 AB 클래스 전환 스위치 하나만으로 동작 방법을 손쉽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SB301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앰프가 아니다. 사실 국내 환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출력 가능한 채널당 310W(8Ω)의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펙 상으로 보자면 플리니우스 파워 앰프 중 가장 높은 출력이며 동사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SA-REF 파워 앰프보다 (단순 스펙상 계산) 출력이 높다. 이런 고출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동이 매우 어렵다는 스피커들을 아주 쉽게 구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SB-301에 대해 자료를 모으던 중 특이한 점을 하

나 찾을 수 있었는데 플리니우스 사이트에서 상급기로 소개되고 있는 SA-103의 외형과 무게가(높이, 폭, 깊이, 무게 수치는 완전히 동일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외형은 전면 패널에 뮤트 스위치와 클래스 A 스위치를 빼면 다른 점을 찾기란 숨은그림찾기 하듯 하다. 무게도 동일하니 말이다. 필자의 추측이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거의 같은 제품이라 보아야 할 것 같다. 거의 같은 설계이지만 한쪽은 저 능률 스피커에 대응할 수 있도록 AB 클래스의 대출력 파워 앰프로 마무리한 것이고, 한쪽은 음색적인 우위에 있는 A 클래스 125W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필자에게 SB301이 더 매력적이다.

설계를 보면 기존 플리니우스의 SA102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다.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대형 방열판을 기본으로 밸런스, 언밸런스 전환 스위치의 조작법까지 거의 같다. 물론 출력 단자도 바이와이어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2층 구조로 아래쪽엔 트랜스포머를 비롯한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로는 증폭 회로로 꾸며져 있다. 하지만 소리는 플리니우스의 전통적 컬러를 유지하면서도 정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기존 플리니우스의 최상급기 모델을 일컬어 '번비 걸린 스피커에 껌변을 유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SB301이 딱 그만큼의 구동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사리 정말 구동이 어렵다는 스피커 3조를 연결해 보았는데, 결과는 딱 5초면 파악할 수 있다. 그만큼 놀랄울 정도의 스피커 장악력을 펼치는데 이전에도 잘 울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엘락 FS608-4Pi에서 완전히 다른 성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나긋나긋하고 질적으로 매우 기품 있는 소리를 내는 이 스피

피커가 만들어 내던 음장감, 포커스, 무대 크기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SB301과 연결했을 때 이 스피커가 왜 엘락의 톱 모델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저음은 더욱 깊이 떨어지고 한계치의 저음까지 여유롭게 재생하지만 비교적 정확한 반응을 보여준다. 또한 FS608-4Pi 모델명에서 4Pi가 말하듯, 수평 360도 무지향의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트위터는 어떤 음악이든 자연스러운 매우 사실적인 무대감을 만들어낸다. 더욱 크고 정교한 무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한 필자는 조금 놀랐는데 구동력 하나만 큼은 2배의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는 앰프들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이 이상이라 할 만큼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렇게 며칠 듣다가 정말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를 접하게 되었는데, 어떤 앰프를 물려주느냐에 따라 원래 가격의 반값보다 못하기도, 그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스피커였는데 이 스피

피커에서의 차이는 굉장하다 할 만큼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차이는 눈을 감고 음상이 어떤지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 플레트네프가 지휘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op.74(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버진)를 들어보면 파워 앰프 하나로 긴장감과 박력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스피커를 구동

하는 힘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관악기의 질감도 비교적 사실적인 재현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플루트와 같은 목관 악기의 질감도 생기 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한 모든 앨범에서 플리니우스의 색깔이 그대로 비춰 재생된다는 것이다. 사실 플리니우스의 음색은 고음이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으며 저음의 무게가 상당히 실리는 편인데 특정 메이커처럼 저음의 힘을 실어준다고 중저음을 강조한 형태는 아니며 매우 평탄한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인지 낮은 저역까지 재생 가능한 스피커와 SB301을 조합하면 진정한 저역이 무엇인지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너무 구동력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음색은 별로이지 않을까 궁금해할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기존 SA 시리즈에서 A, AB 클래스 전환 스위치로 들던 음질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사실 직접적인 비교가 되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밀도감이나 온도감은 SA 시리즈의 음색에 거의 필적한다는 것. 구동력은 SB301쪽이 확실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저음의 깊이감이 아닌 응답성을 말한다) 음색과 구동력 모두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 앰프를 선택 사항에 한 번쯤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시스템 구성의 매칭의 절묘함을 아는 독자라면 이 앰프로 최고의 음질을 구현할지도 모른다. **A**

